<미국의 수필폭풍> 박덕규 엮음 / 청동거울 펴냄

미국의 한인작가 13인의

수필 총 26편을 통해 본 미주 한인문학의 현주소

『미국의 수필폭풍』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작가 13인의 각 2편씩의 수필, 총 26편을 수록한 수필 모음집이자 그것을 중심으로 미주 한인 수필문학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스토리로 읽을 수 있는 미주 한인문학 해설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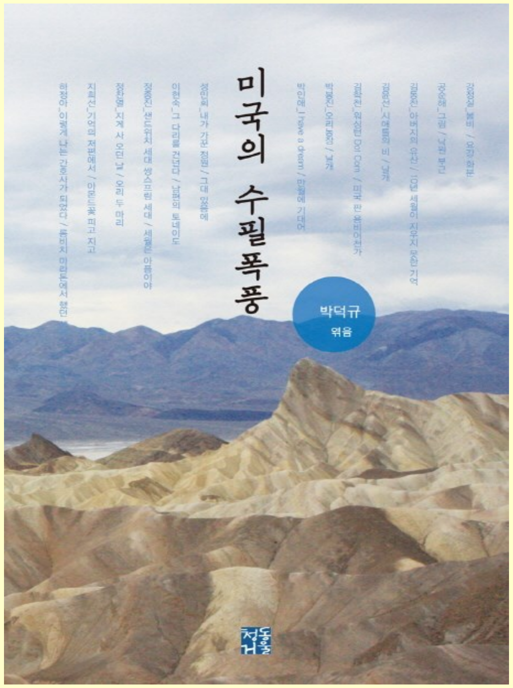
제1장과 제3장은 13인 작가의 수필을 수록해 놓았고 각 작가별로 수필을 쓰게 된 동기, 수필문학을 바라보는 관점, 미국에서 수필을 쓰는 의미 등을 내용으로 한 인터뷰를 수록해 놓아 디아스포라 문학이자 한국문학의 귀중한 자산으로서의 미주 한인문학에 대한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다 제2장과 제4장에서는 엮은이가 미주지역 한인문학의 역사와 의미, 작품 세계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해설을 곁들임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새롭고 특별한 이민 체험을 수준 높게 형상화한 이들 작가들의 수필 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수필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다. 작품도 읽을 수 있고 그 작품의 배경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미국의 수필폭풍

출판기념회

박덕규교수 문학 강연 및 작가와의 만남



일 시 : 2017년 1월 24일 (수) 6PM—9PM

장 소 : 한국교육원 212호